

포트폴리오

황귀영

작가노트

황귀영은 설치와 퍼포먼스, 영상, 그리고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과 집단, 사익과 공익, 친밀함과 대의처럼 상반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일상의 딜레마를 탐구한다. 작업은 이러한 대립을 구성하는 이분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 전제를 되묻고 새로운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와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미술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개념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소개 작업

Selected Works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미확인 표식들 (2018)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상황에서 잘 가시화되지 않는 개인의 입장을 드러내고,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탐구한다. 나는 거주하던 공덕동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소통방식을 관찰하였다. 지리적으로는 내부자이지만 세입자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는 외부인이 되는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소통을 시도했다. 주민으로서의 생각, 이웃과 나누었던 대화, 고민을 현수막에 출력하여 집 베란다에 걸거나, 건설사가 조합에 보내는 화환과 유사하지만 수신자와 발신자가 달리 설정된 화환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또한 재개발 경계선을 마주보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계선 기념하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로 이분화된 이해집단의 목소리 외에 어떠한 소통이 가능한지 질문해보고자 했다.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전시 기록, 2018, 설치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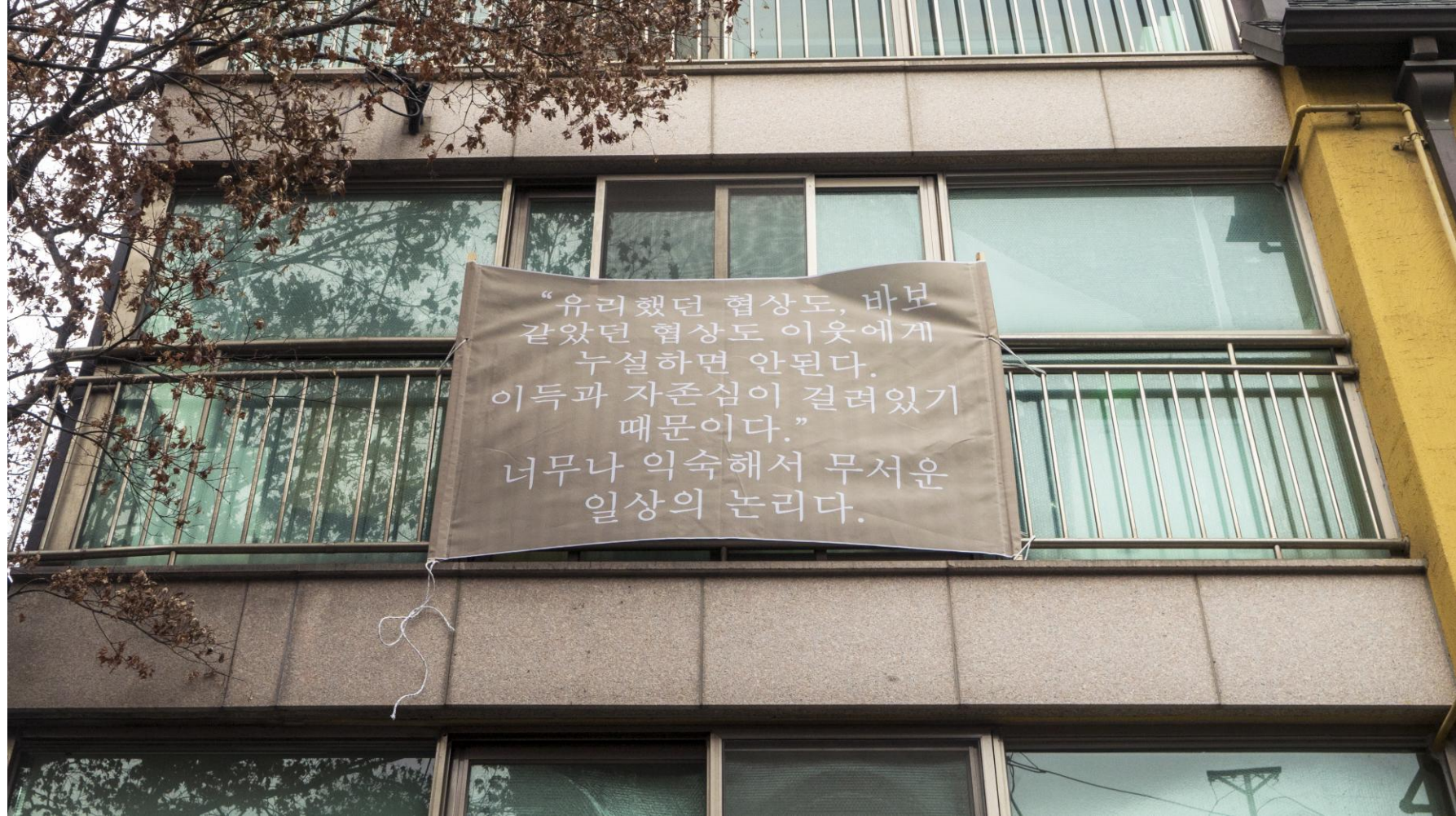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7-2018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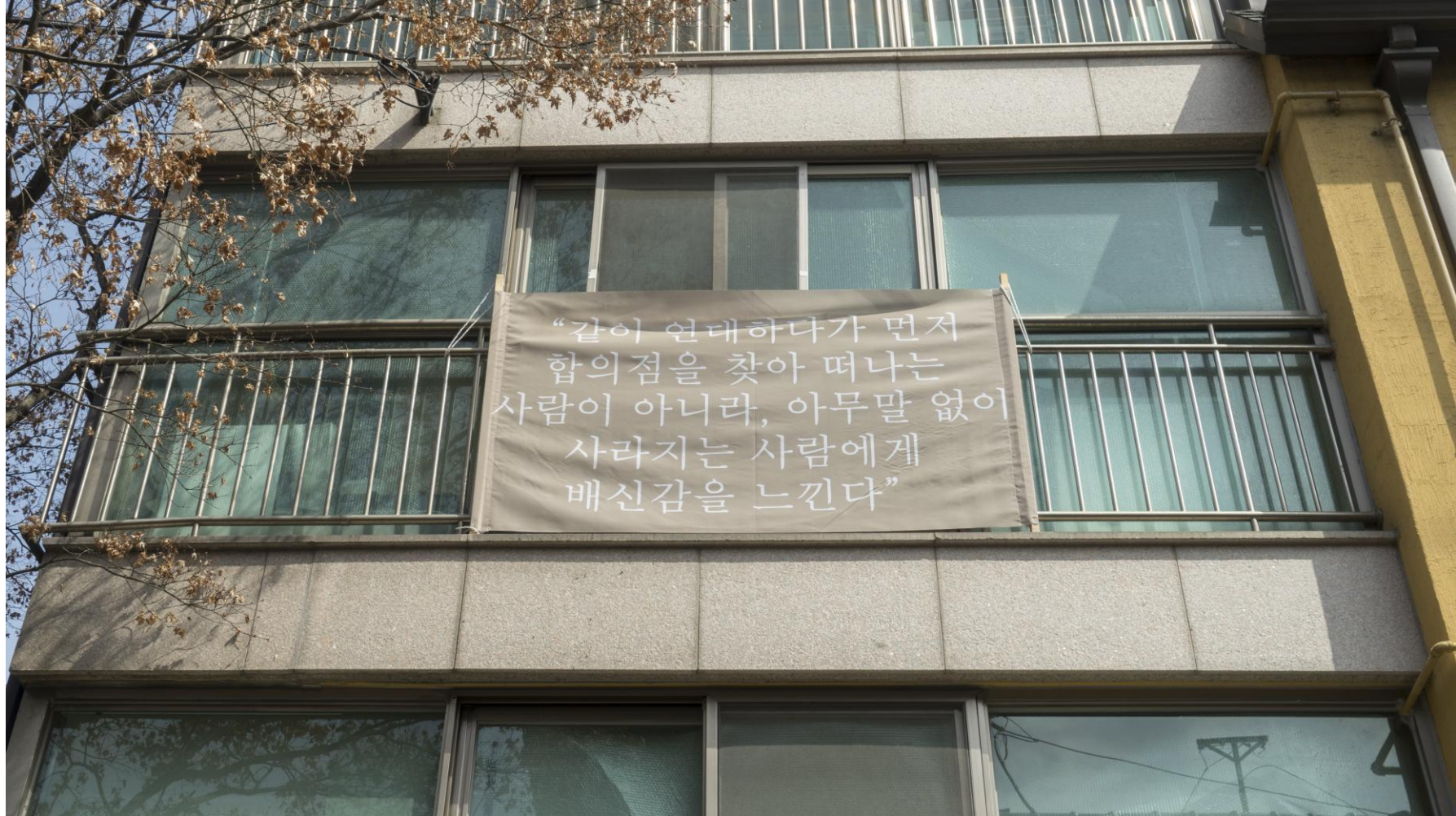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8



“유리했던 협상도, 바보
같았던 협상도 이웃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이득과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무서운
일상의 논리다.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8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8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80cm, 2018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1〉, 2017~2018, 현수막에 프린트, 각120cm x 80cm, 갤러리 설치 장면

미확인 표식들 2

재건축 구역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나는 지리적으로는 '내부자'이지만 재건축 과정에는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자'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나는 재건축 지역에서 목격한 관례화된 관계 맺기의 방식인 화환을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맺기의 장치로 전유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3월 한 달 동안 재건축 구역 내의 14명의 주민들에게 임의의 호칭과 메시지를 담은 화환을 보냈다. 그리고 화환의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일 후에 화환을 문 앞에 되돌려 놓기를 요청했다.



시골주택의 아파트 문 앞에 놓인 화환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2〉, 디지털 프린트, 각각 65cmx51cm, 2018

화환 안에는 송신자(작가)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울특별시 아로구 공덕동 92-0



서울특별시 아로구 공덕동 00



서울특별시 아로구 공덕동 105-000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미확인 표식들 2〉, 디지털 프린트, 각각 65cmx51cm, 2018

주민들에게 보낸 화환의 모습(상단)과 시간이 지난 후 모습(하단)

경계 표시하기

나는 재건축 경계를 마주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경계 기념하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사진으로 남겼다.

1. 경계를 공유하는 두 사람을 초대한다.
2. 초대된 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3.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물건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자를 뒤집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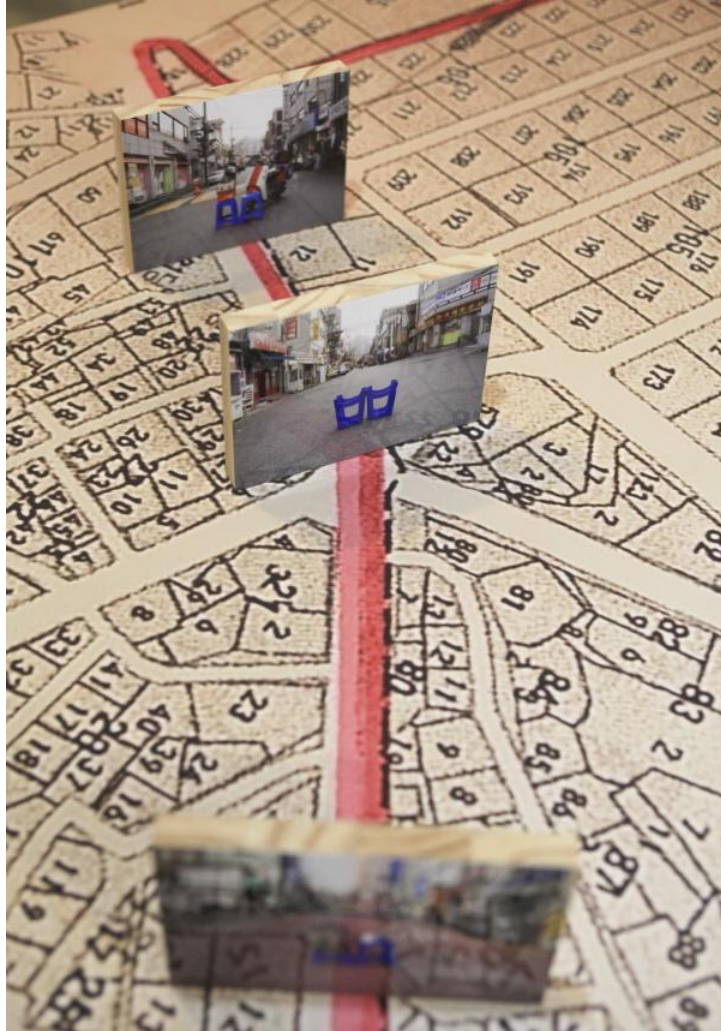
Making Other Borders is a project that is being conducted with pairs of residents who face each other along the border of the redevelopment area. I met with the residents across the border and asked them to participate in a project designed to commemorate the border. Those who agreed to participate will place objects that they own on top of the chairs, which were prepared by the artist. Those who do not wish to participate will be presented with the chairs, placed upside down.



나란히 놓인 의자 위의 물건은 경계선을
마주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기념한다.

뒤집힌 의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관계를 기록한다.

사진에서 붉은 선의 왼쪽은 개발될 구역,
오른쪽은 존치될 구역이다.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경계 표시하기〉, 참여 프로젝트 기록 설치(세부), 2018

이 지역은 봉제공장이 많았는데,
왼쪽 주민은 봉제공장에서 그 날
생산한 옷가지 다발로, 맞은편 실
가게에서는 판매 중인 실타래로
경계선을 기념했다 .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경계 표시하기>, 참여 프로젝트 기록, 디지털 프린트, 3x5in, 2018

오른쪽 미용실에서는 가게에서
기르는 다양한 화분 중 하나를
선택해주었고, 왼쪽 건물의
경비인은 가지고 있던 조화를
선택해주었다.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_경계 표시하기〉, 참여 프로젝트 기록, 디지털 프린트, 3x5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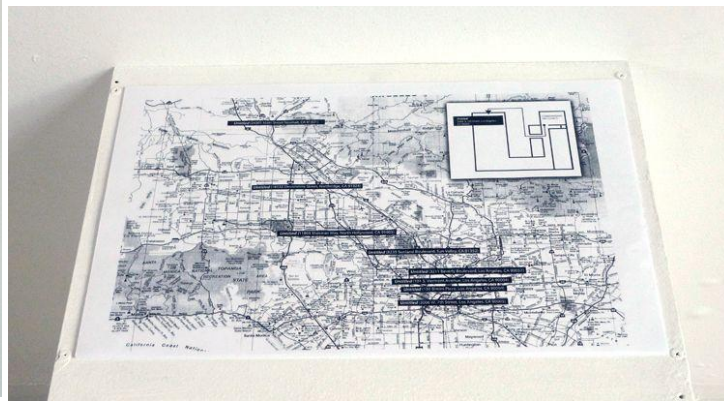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자택에서의 전시 광경,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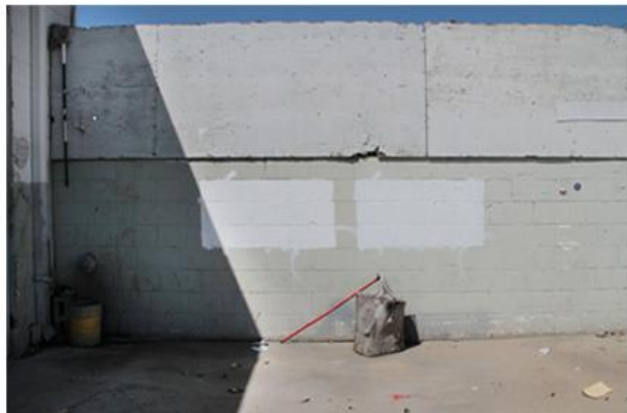
프로젝트 결과물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거친 후 자택에서 한 번 더 전시되었고, 지역 주민들을 관객으로 초대했다.

비흔적을 표시하기(2012-2013)

그래피티 중 태깅(tagging)은 개인이나 그룹의 정체성을 공적 장소에 표시하는 문화다. 캘리포니아 남부 환경미화청에서는 2011년부터 그래피티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우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반응하여 나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래피티(태깅)를 지운 흔적을 복제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지워진 흔적을 복제함으로써 흔적과 비흔적, 정체성의 표식과 비흔적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개인전, 2012.7.14-8.4, Commonwealth and Council, 《비흔적을 표시하기》, 설치 광경
영상은 태깅 하는 모습. 비치된 지도는 흔적이 남겨진 주소를 안내한다.



<비흔적을 표시하기>

그래피티를 남긴 직후(상단), 1년이 지난 후 상태(하단)



〈비흔적을 표시하기〉, 설치, 각각 3m x 2m, 2012

전시장 외벽의 태깅을 관리인이 지운 흔적에는 묘하게도 원본의 윤곽이 남아있었다. 관리인이 지운 흔적을 작가가 똑같이 따라 그리자 지운 흔적 두 개가 나란히 존재하게 됐다. (좌측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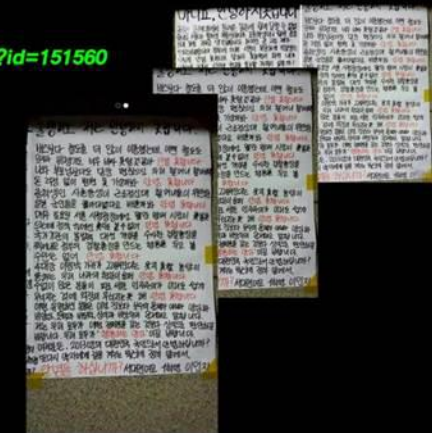
건물주가 두 흔적을 모두 ‘낙서’로 간주하고 지우기를 요청하여 작가와 미술공간 디렉터, 관리인은 합의 하에 지운 흔적을 다시 지웠다. (우측 이미지)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2014)

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에 등장한 대자보들 중 타인에 의해 훼손된 대자보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수집하여 영상(<발화와 훼손의 위치짓기>)과 티셔츠로 만들었다.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는 가족의 만류로 대자보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상황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핵가족의 심리적 경계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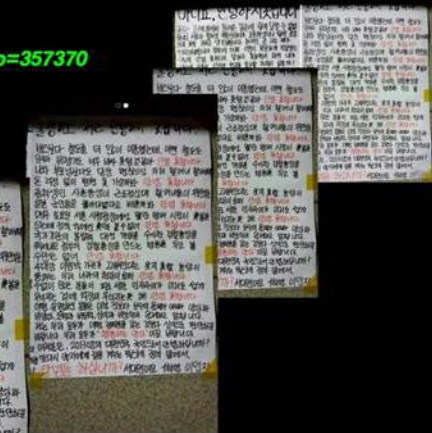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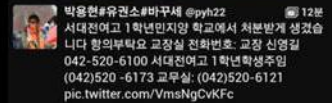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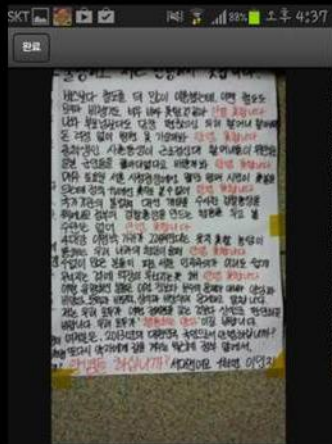
17:30:00. 2013.12.29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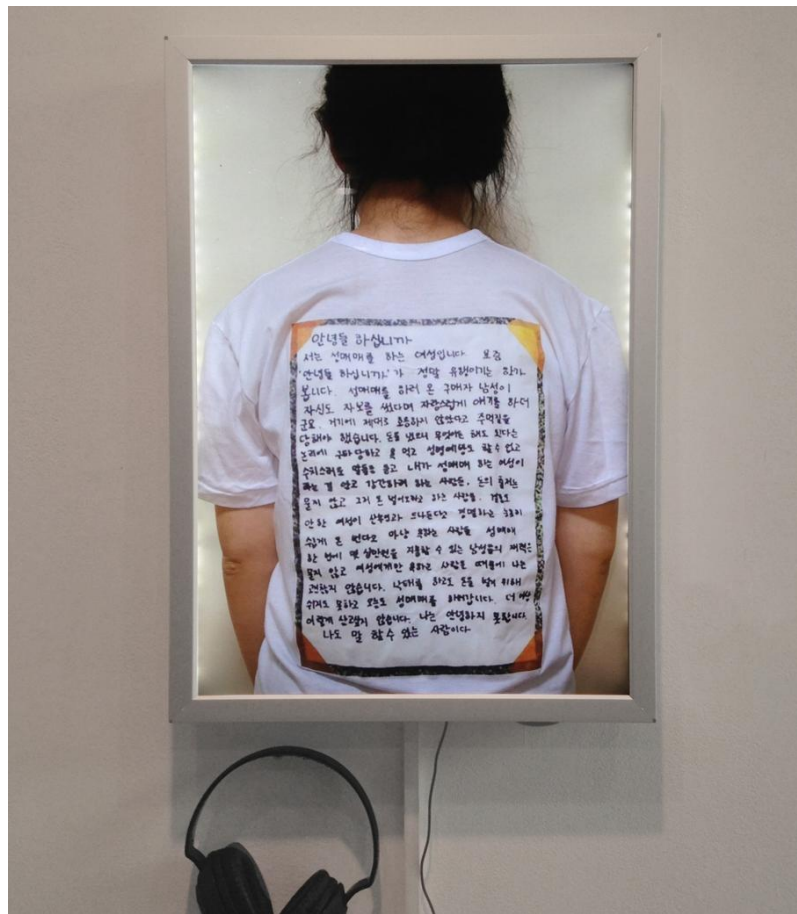


04:37:00. 2014.1.03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57370>



〈발화와 훼손의 위치 짓기〉, 컬러, 영상, 1분 31초, 2014



URL <https://vimeo.com/295235302>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 라이트박스 설치 및 사운드, 2014

어느 경비원의 일지(2021)

나는 한국에서 주로 나이든 남성이 맡는 공공장소의 보호자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경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년예술청에서 한 달간 ‘경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예술기관, 경비업체, 작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실제 경비 업무와 동일한 책임이나 권한을 모두 수행하기보다는, ‘작업’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실험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나는 기존의 경비 지침을 수용하거나 변경하거나 협상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했고, 기록은 두 가지 양식의 일지로 남겨졌다. 양식 1은 실제 경비일지 양식을 따랐고, 양식 2는 일기 형식으로 나의 감상과 생각을 담았다.

퍼포먼스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위치를 다르게 상상해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화장실 안내해주기, 실내 환경 바꾸기 등의 행위는 공공장소의 규범과 표준을 따르거나 위반한다.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보안, 관리, 서비스, 예술 행위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보안 일의 본질을 묻게 되기도 했다. 한 달 간의 퍼포먼스는 감사제를 통해 마무리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는 경비가 아닌 작가로서 감사장을 수여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촬영: 이현석, 권수진, 최민경, 김정은, 전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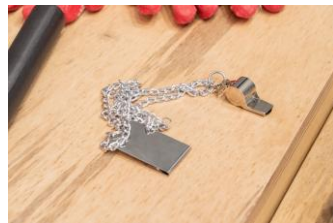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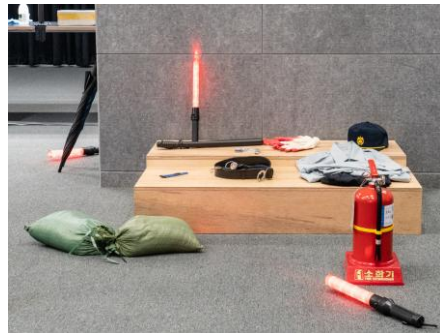
〈어느 경비원의 일지〉, 청년예술청에서 한 달간 퍼포먼스, 2021.8.9 - 9.10, 퍼포먼스 기록, 디지털 사진, 가변 크기

퍼포먼스에 사용된 유니폼과 두 가지 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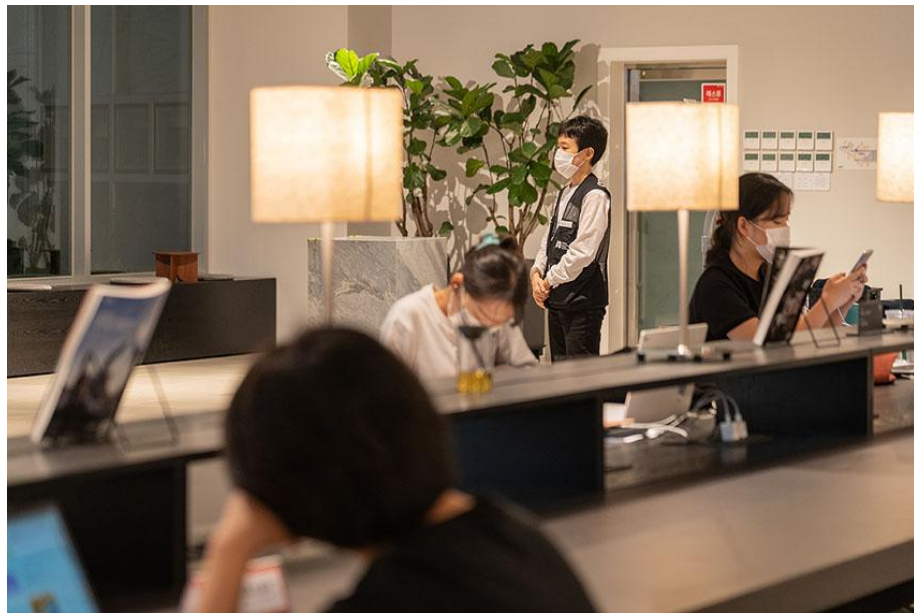
개인전 2021.9.29-30, 청년예술청 SAPY, 《어느 경비원의 일지》, 설치 광경, 기록물 설치 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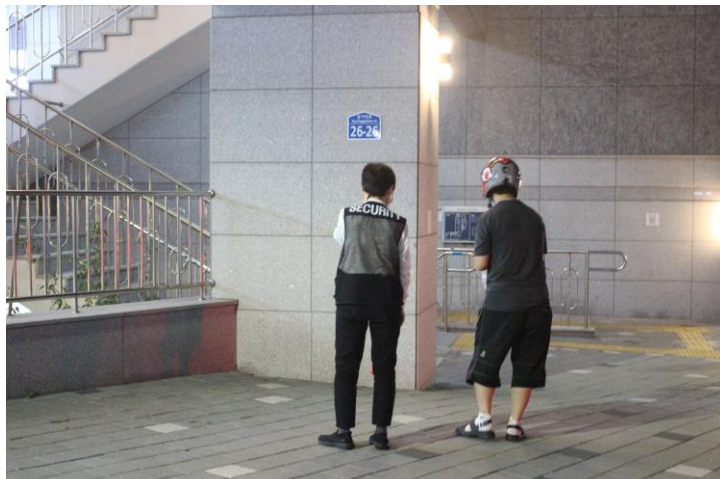
<어느 경비원의 일지>, 퍼포먼스 기록 설치, 청년예술청, 2021

퍼포먼스에 사용한 도구들



〈어느 경비원의 일지〉, 2021, 퍼포먼스 기록, 디지털 사진, 가변크기

경비 활동을 수행 중인 모습



작가	예술청	메서브
결재		

1. 인원현황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날씨: 맑음	
구분	총원	근무인원	비변인원	근무자: 황규영	사고인원	사고내용
보안직	1	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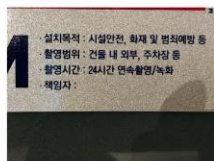
보안 업무일지

2. 업무내용		논의한 업무		자체 수행 업무	
1. 방문객 QR, 발열체크	☑	내부 전달 및 보고용	☑	단톡방	정년예수정 이용유기 있기 (네이버 예약)
2.		참여 or 개설	☑	수용불가	
3.		개인정보 없는 대관 스케줄을	☑	수용	
4.		출력형태로 공유	☑	수용불가	
5.		CCTV열람	☑	수용	
6.		대관시스템 이용방법 및 규칙	☑	수용	
		숙지	☑	수용	

*의뢰/논의 주제: ☑(정년예수정), ☑(메서브), ☑(이용자)

시각	시간	결과	비고
순찰장소			
예술청 일대 바깥			
예술청 일대 바깥			

DAY
4



경비도 침입자가 될 수 있을까

경비가 작동 중인 문을 열어서 세콤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내부인이 밖에서 들어오고, 외부인이 안에서 맞이 한 날이다.



DAY
12

명찰을 달다.



보안 주체는 자신을 노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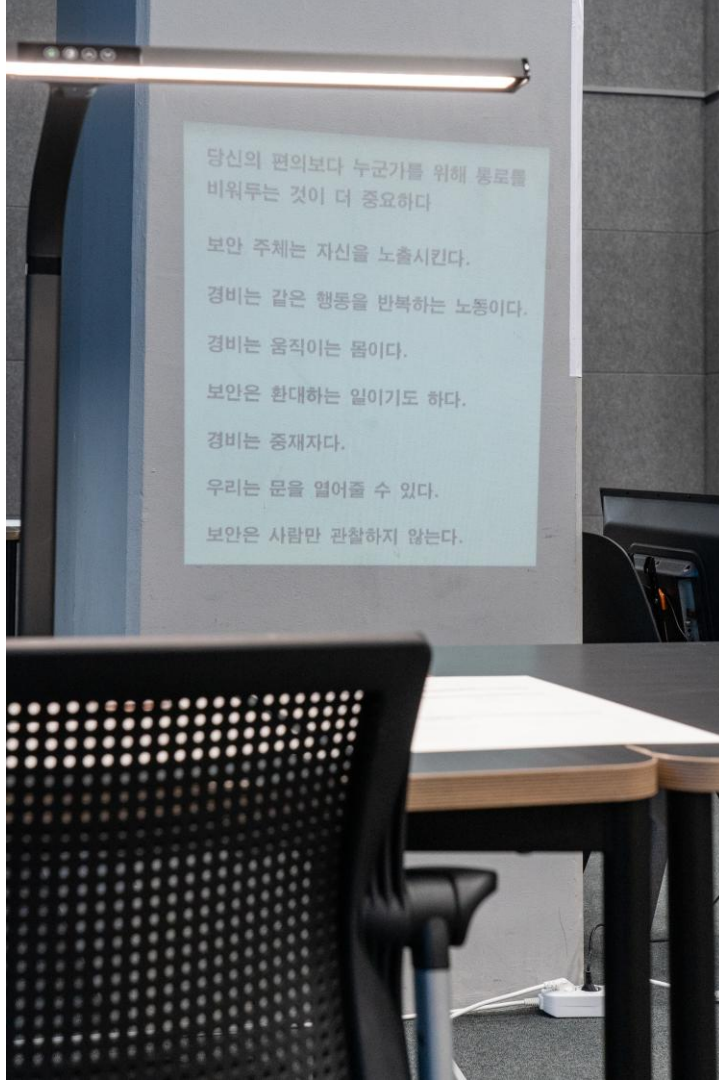
경비는 유니폼 뒤로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호대상인 입주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알리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위치이기도 했다. 나는 경비처럼 보이기 위해 썼던 모자를 벗고 사람들이라 눈을 마주치려 했고, 명찰을 달아 신원을 드러냈다.

DA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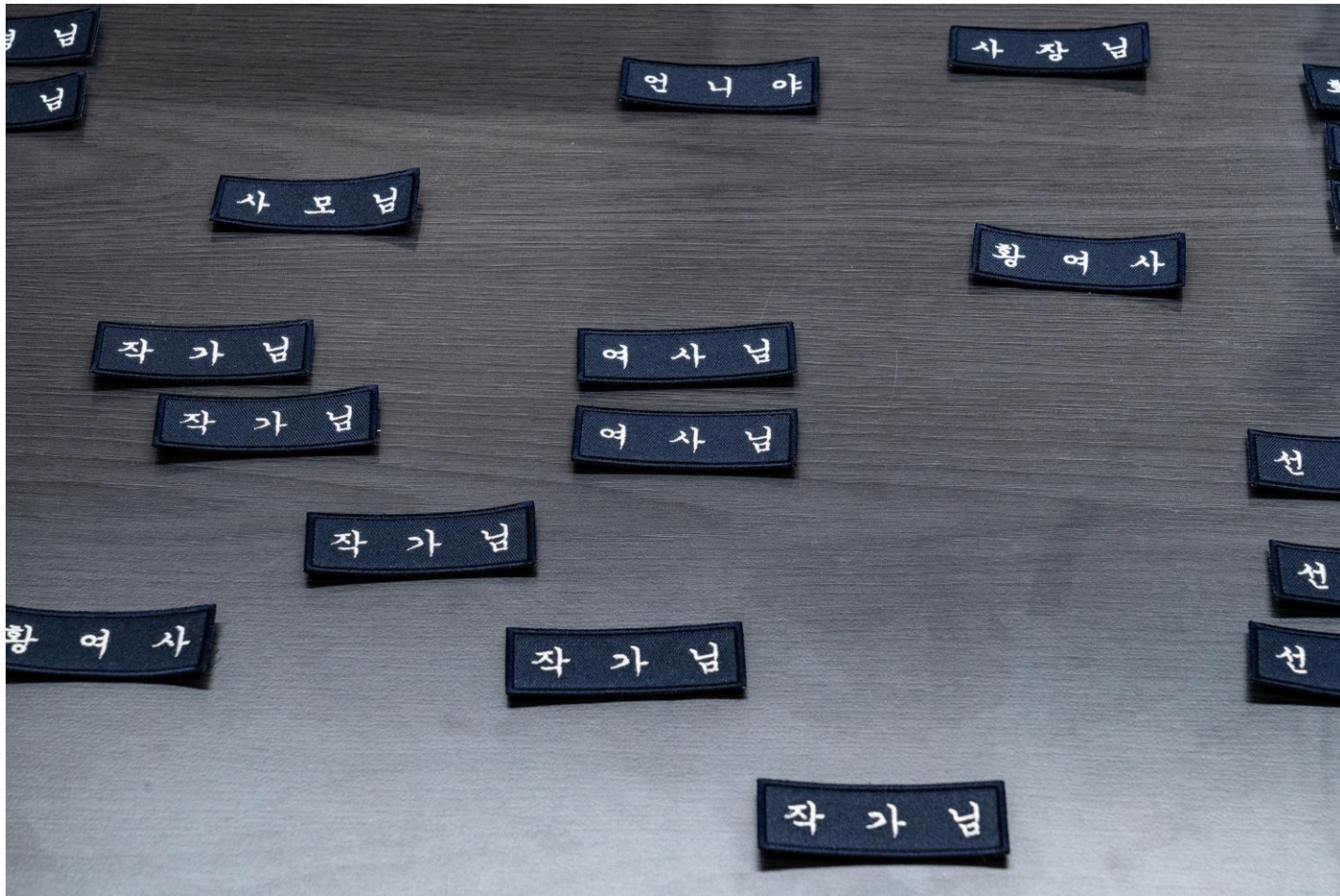


경비, 보안, 미화 사이에 선명한 경계와 위계가 있는가?

나의 명찰에 쓰여진 경비를 안전 관리나 보안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자주 받았다. 나는 경비와 보안 업무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나누는 게 어려웠다. 또한 어디까지가 미화일인지 어디까지가 경비일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권한이나 기밀이 수반되어야 하는 보안보다는 미화일이 많다는 생각에 연달기도 했다. 반면 세 가지 업무의 가치를 두고 위계 세우기 어렵다는 이중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계가 모호해진다면 그러한 모호성은 부당하다는 복잡한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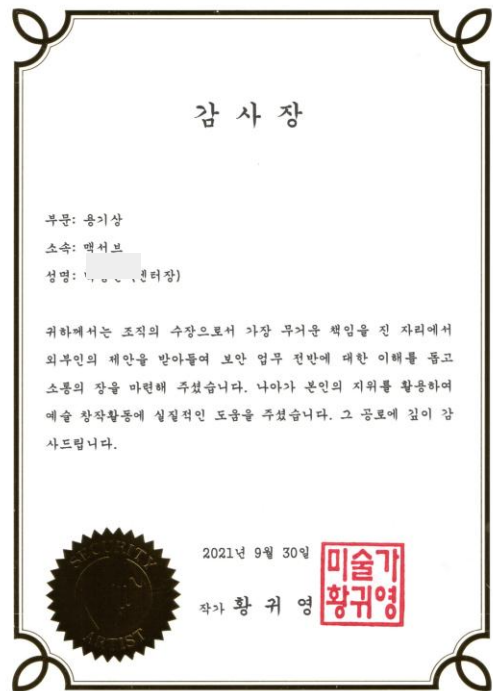


〈어느 경비원의 일지〉, 2021, 전시 설치
한 달 동안 받아들이거나 변경, 거부한 경비 수칙은
목록화 된 명제로 전시장에 제시됐다.



〈어느 경비원의 일지〉, 퍼포먼스 기록, 청년예술청, 2021

호칭의 기록. 퍼포먼스 기간 동안 연루된 사람들과 작가의 관계를 암시한다.



〈어느 경비원의 일지〉, 퍼포먼스 프로젝트 기록, 청년예술청, 2021
퍼포먼스를 마친 후 경비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들(보안 업체, 예술 기관)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상식 자리를 가졌다.

산 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2007-2010)

공원으로 등록된 신림동의 산83에는 농작물을 길러 먹으려는 주민들과 녹화사업을 하는 구청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다. 이웃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는 구청의 규제활동(녹화사업), 주민들의 사적인 토지 활용(농작), 작가로서 나의 반응(정원 가꾸기)을 기록한 세 가지 문서를 남겼다.



〈산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2007-2010, 설치 및 다큐멘테이션

구청의 규제활동(녹화사업), 주민들의 사적인 활용(농작), 작가로서 나의 개입(정원 가꾸기)을 기록한 세 가지 문서



〈산 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농사기록〉, 8x10in, 디지털프린트, 2007-2010

‘농사 기록’ 중 일부, 농사기록은 점유자마다 달리 고안한 울타리의 형태와 기르는 작물의 종류, 점유자에 대한 관찰사항을 담고 있다.

날짜

2007년 3월



기록사항

구청 공무원들이 A4용지를 코팅한 경고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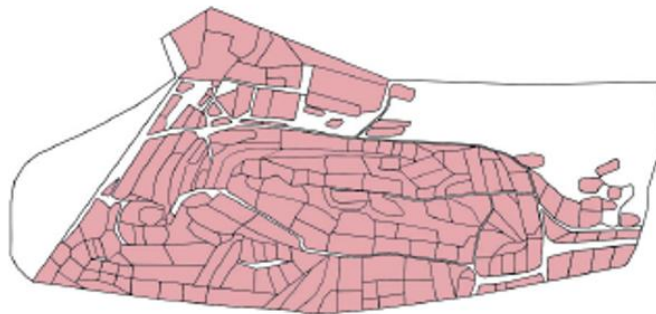
“이 곳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용지’로서 농작물 경작 및 산림훼손 행위는
공원관린법에 의거하여 처벌함”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무단경작 행위 등을 하지 맙시다.”

규제 기록

토지	위치	분류 번호	지목	면적
	관악구 신림동 산63	83	공원	18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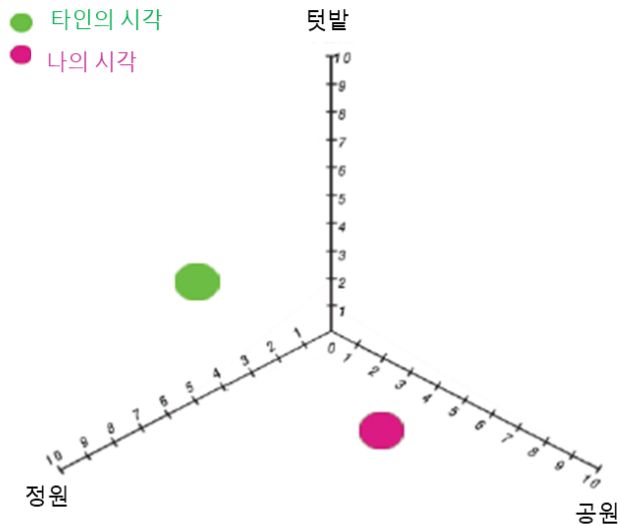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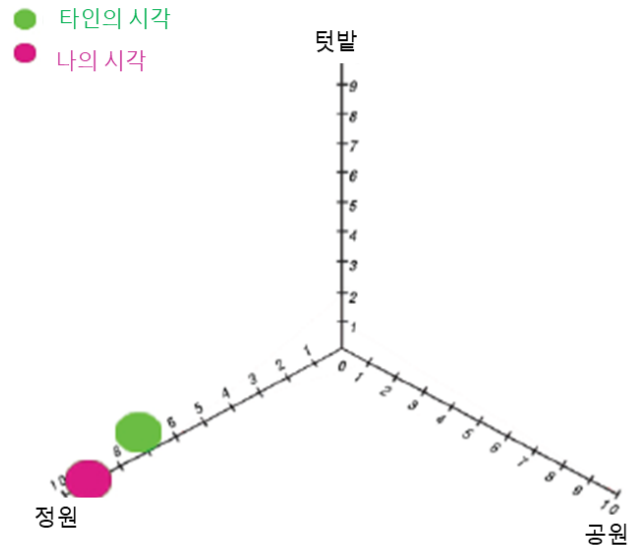
〈산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5m x 3m, 설치, 2009-2010

산83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던 나는 공원도 텃밭도 아닌 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구청의 경작 금지 현수막을 모아 만든 정원의 울타리는 여전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 산장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 두 분께서 누군가 내 꽃을 훔쳐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분들은 정원의 위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더 관리하기 편한 부지를 추천해주었다. 그 분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정원에 돈을 많이 쓰냐고 물어봤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을 같이 보면 좋지 않아요?” 라고 했다. 이게 개인 정원이라는 사실을 순간 망각했다.

* 한 아저씨가 무슨 종류의 잔디를 심은 건지 물어봤다.



*106동 15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잡초를 좀 뽑으라고 제안하셨다.

*아랫동네에서 온 60대 가량의 아저씨가 불평을 늘어놓았다. 구정에서 경작을 금지해서 생활비가 더 들게 생겼다고 했다. 아저씨가 나의 정원을 보고는 부르주아같다고 했다.

〈산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정원기록〉, 각각 21x29.7cm, 문서, 2009-2010

규제활동, 무단 점유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인 정원기록. 삼각형의 그래프는 공원, 정원, 텃밭 세 가지 축 사이에서 날마다 변화하는 정원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다.



〈산 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정원기록〉, 5m x 4m, 설치, 2007-2010

산 83에 만든 또 하나의 정원. 'MINE'모양으로 심어진 꽃들은 고층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나의 것'을 지칭하는 반면 저층에 사는 거주자들에게는 조망권의 차이로 인해 꽃밭으로 인식된다.

De-tour(2019)

나는 뉴욕의 주택 관련 갈등을 조사하던 중, 아시아에서 온 투자자본이 아시안아메리칸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또한 뉴욕의 부동산 곳곳에 투자 중이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여러 금융보고서에서 국내자본이 투자한 뉴욕의 부동산들을 찾은 후, 관광객 복장을 하고 찾아가 셀카를 남겼다. 사진은 뉴욕을 사랑하는 관광객이자 투자자라는 이중적 위치를 기록한다.

Built in 1929, Helmsley building was designed by Warren & Wetmore, the architects of Grand Central Terminal. The building was designated a New York City Landmark in 1987. It is fully lit in beautiful colors in the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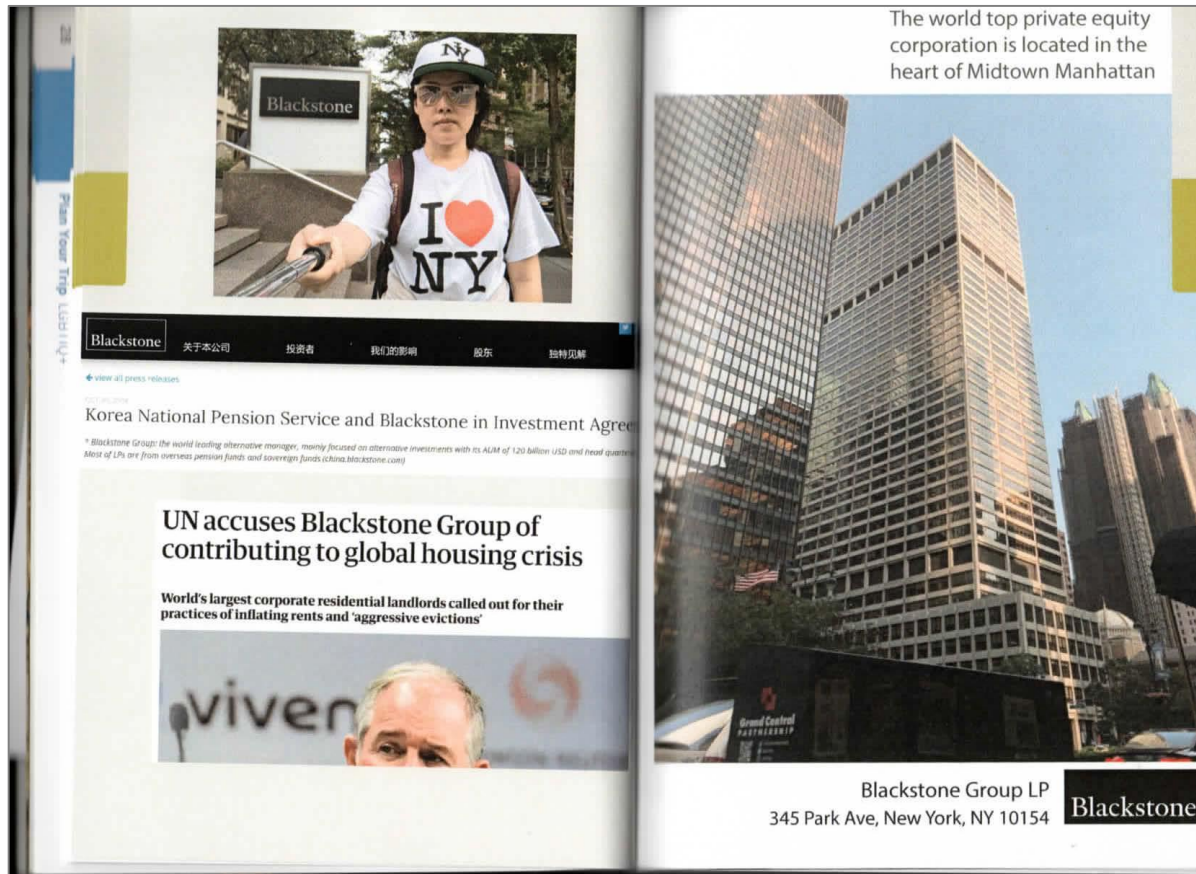
Helmsley Building
230 Park Ave, New York, NY 10169

USD 787,000,000 from Korea NPS is invested in Helmsley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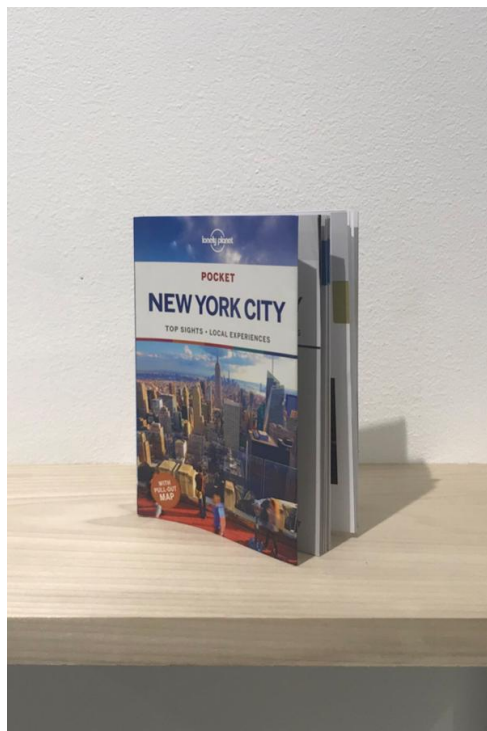
Helmsley Building
230 Park Ave, New York, NY 10169

〈De-tour〉, 디지털 프린트, 각각 10.8x15.5cm, 2019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뉴욕의 헬슬리 빌딩 앞에서 찍은 관광 셀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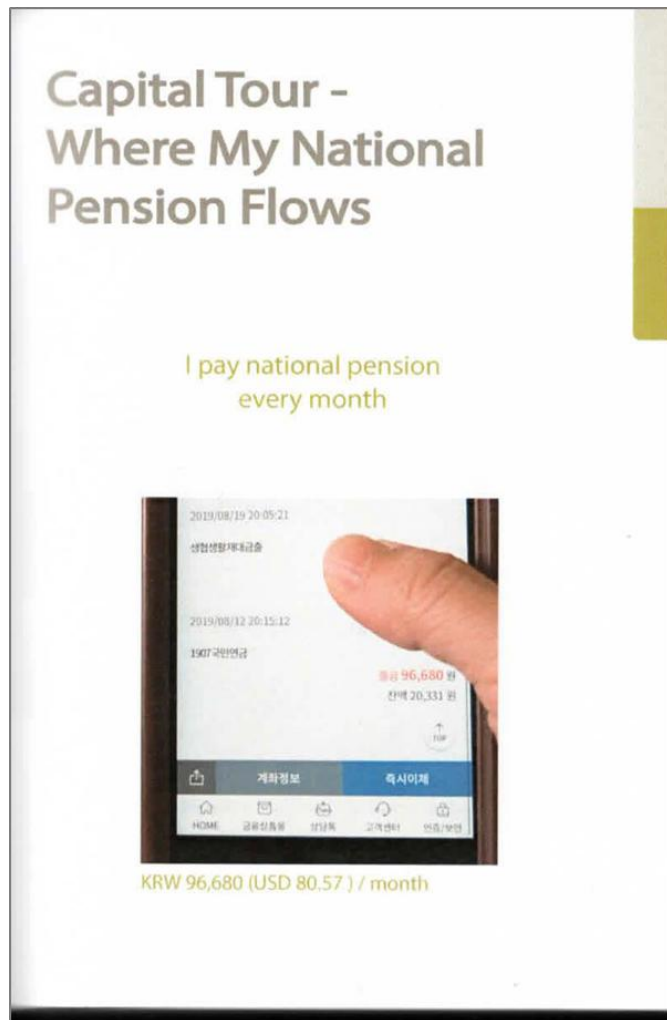
〈De-tour〉, 디지털 프린트, 각각 10.8x15.5cm, 2019

국민연금과 투자 협약을 맺은 블랙스톤 사옥. 유엔은 블랙스톤이 글로벌 주택난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했다.



〈De-tour〉, 디지털 프린트, 10.8x15.5cm, 2019

셀카는 관광서적을 패러디한 안내 책자 형식으로 전시되었다.
상세 페이지(우측)는 연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묻고 있다.



동대문 운동장을 기억하는 방법 (2008~2017)

퍼포머들은 동대문운동장에 남아 있는 육상트랙을 따라 경주한다. 장소의 정체성이 벼룩시장, 유적지,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면서 달리기 주자들은 매번 다른 경주를 하게 된다.

카메라: 김남희, 조정욱, 황귀영, 김정은

퍼포머: 김호연, 양소망, 전현배, 최민경, 황귀영



〈 동대문 운동장을 기억하는 방법 〉 , 단채널 비디오, 컬러, 3분 36초, 2008~2017

<https://vimeo.com/63118365?fl=pl&fe=sh>

미래 식품 (2015)

〈미래식품〉은 도시건축비엔날레에 일시적으로 운영된 선물가게이다. 마트 전단지에는 주류언론 기사부터 맘카페 댓글까지 신뢰도가 다른 미디어 소스에서 가져온 식품·건강 정보들이 색깔로 분류되어 위계 없이 제시된다. 이용자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혼란스럽고 상충하는 정보들을 참고하여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고를 수 있다.



〈미래식품〉, 선물가게, 돈의문 박물관마을, 2015

How to Use Future Mart

Future Mart is a gift shop. If you want to send a gift to someone, please refer to the supermarket flyer. After selecting items, use the QR code to access and fill out the order request. We will contact you to review details and check availability. Gift boxes are shipped every Wednesda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t futuremartseoul@gmail.com



ORDER(ENGLISH)

미래식품 이용방법

미래식품은 선물가게입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전단지를 참고하시어 원하는 상품을 고르신 후 QR코드를 이용하여 주문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과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선물은 택배로 매주 수요일 발송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futuremartseoul@gmail.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한국어)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에 대한 반대를 멈추라고 촉구하며 성명에 동참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성명에서 “세계 과학자들은 GMO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작물이나 식량만큼 안전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며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섭취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공부한 후 백악관에서 몬산토 제품을 금지시켰다.



농업진흥청에서 전국 7개 지역에 콩, 감자, 토마토, 벼를 포함해 14작물 142종의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식인 벼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유전자 변형 벼의 이름은 ‘익산526호’입니다. 기능성 작물로 항비만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동물실험을 거쳐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식약처에서 GMO 표시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서산 엄마들의 모임★)
|작성자 진주

MONSANTO



독일의 화학·제약회사인 바이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으로 6년에 걸쳐 농업 연구 개발(R&D) 분야에서 80억 달러(9조3천6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언론
비주류 언론
카페, 블로그
책
기타